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지역 수출입 기업
긴급 모니터링**

2022. 2.

<조사개요>

1. 조사명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지역 수출입 기업 긴급 모니터링

2. 조사목적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정세불안으로 지역 수출입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업계의 영향 및 애로사항 등 파악하여 대응 방안 마련 및 대정부 건의 기초 자료 활용코자 함

3. 조사대상

- 지역 주요 수출입업체, 대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입업체 등 100개체

4. 조사방법

- 전화면담조사

5. 조사내용

- 수출입관련 피해 여부 및 애로사항
- 자체 대응 방안 및 필요한 지원책

6. 조사기간

- 2022년 2월 24일 ~ 2월 25일 (2일간)

1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사태 개요

□ 사태 경과 및 현황

- 21년 11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10만명 병력배치하면서 우크라이나 등 구 소련 국가의 NATO가입 영구배제 및 군사 훈련 및 군사배치 철수 할 것을 요구함. 반면 우크라이나는 자주민주국가를 위해 NATO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갈등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우려되는 상황
- 미국-러시아 정상회담과 NATO-러시아 회담, 유럽안보협력기구-러시아 회의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
- 22년 2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세력이 내세운 두 공화국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 후 러시아군 진입 명령
- 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 러시아에 대한 미국, EU 등 경제 제재 발표

2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교역 동향

1. 부산지역 對러시아 수출입 현황

- 2021년 부산의 對러시아 수출액은 3억2천만달러로 전체의 2.2% 비중을 차지하며, 국가별 수출순위는 10위를 기록
 - 전국(1.5% 비중, 12위)과 비교할 경우 부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
- 對러시아 수입액은 8억2천만달러로 전체의 5.4% 비중을 차지하며, 국가별 수입순위는 5위를 기록

- 对러시아 국가 수출에 비해 수입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부산지역 对러시아 수출입 현황 >

구분	총수출액	对러시아 수출액			총수입액	对러시아 수입액		
			비중	국가별 순위			비중	국가별 순위
전국	644,400,368	9,979,539	1.5%	12위	615,093,447	17,356,692	2.8%	9위
부산	14,816,262	325,433	2.2%	10위	15,383,476	824,760	5.4%	5위

* 주: 2021년 기준, 단위: 천 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

2. 부산지역 对러시아 수출입 품목 현황

-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철강판(14.5%), 종이제품(11.7%), 화장품(8.0%), 주단조품(7.7%), 어망(6.8%) 등
-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어류(42.9%), 갑각류(21.1%), 어육 및 어란(14.1%) 등 수산품의 비중 78.1%로 대부분을 차지함

< 부산지역 对러시아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

순번	품목	对러시아 수출액			품목	对러시아 수입액		
			비중	비중			비중	비중
1	철강판	47,164	14.5%		어류	353,669		42.9%
2	종이제품	38,061	11.7%		갑각류	173,616		21.1%
3	비누치약및화장품	26,145	8.0%		어육및어란	116,604		14.1%
4	주단조품	24,952	7.7%		목재류	71,170		8.6%
5	기타섬유제품(어망)	22,017	6.8%		석유제품	28,436		3.4%
6	원동기및펌프	14,924	4.6%		합금철선철및고철	25,645		3.1%
7	플라스틱 제품	13,899	4.3%		연체동물	24,794		3.0%
8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11,685	3.6%		수산가공품	9,941		1.2%
9	자동차부품	7,393	2.3%		합성수지	5,452		0.7%
10	운반하역기계	7,285	2.2%		기타비철금속제품	3,324		0.4%

* 주: 2021년 기준, 단위: MT/3단위, 천 달러

* 자료: 무역협회

3. 부산지역 對우크라이나 수출입 현황

- 2021년 부산의 對우크라이나 수출입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

- 수출액은 1천5백만달러로 전체의 0.1% 비중을 차지하며, 국가별 수출순위는 58위, 수입액은 5백9십만달러로 0.04% 비중이며 68위를 기록

< 부산지역 對우크라이나 수출입 현황 >

구분	총수출액	對우크라이나 수출액	비중	국가별 순위	총수입액	對우크라이나 수입액	비중	국가별 순위
전국	644,400,368	581,488	0.1%	64위	615,093,447	308,887	0.1%	75위
부산	14,816,262	15,078	0.1%	58위	15,383,476	5,962	0.04%	68위

* 주: 2021년 기준, 단위: 천 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

4. 부산지역 對우크라이나 수출입 품목 현황

-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자동차(34.7%), 화장품(29.6%), 의료용기기(16.4%), 철강판(8.9%) 등
-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목재류(43.7%), 수산가공품(23.2%), 선재봉강 및 철근(12.5%) 등

< 부산지역 對우크라이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

순번	품목	對우크라이나 수출액			품목	對우크라이나 수입액	비중
			비중				
1	자동차	5,239	34.7%		목재류	2,605	43.7%
2	비누치약및화장품	4,457	29.6%		수산가공품	1,382	23.2%
3	의료용기기	2,480	16.4%		선재봉강및철근	746	12.5%
4	철강판	1,340	8.9%		기타금속광물	477	8.0%
5	어류	404	2.7%		난방및전열기기	424	7.1%

* 주: 2021년 기준, 단위: MTI3단위, 천 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

3 지역 수출입업계 영향

현재까지는 정상적인 거래가 유지되고 있어 지역 수출입 기업들의 영향은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분쟁상황과 달리 비즈니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별도의 피해가 없는 상황
- 또한 상당수 기업이 해당 국가들과의 거래 비중이 적거나 직거래가 없어 큰 피해나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
 - 지역기업의 거래 비중 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비중이 큰 업종으로는 수산물, 화장품 도매업, 무역업 등

다만 사태 악화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심화 시 대금 회수 지체, 수출 감소, 환리스크, 현지공장 매출 등 피해 발생 우려

- 대부분의 기업이 對러시아 금융제재 조치 발생 시 수출대금 회수가 불투명해져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
- 또한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우크라이나 거래처의 발주 감소와 해당국가로의 수출 애로에 따른 매출 피해가 예상됨. 실제 달러대비 루블화의 가치하락으로 인해 러시아 수입기업의 발주문의와 계약체결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는 실정
- 완성차 러시아 현지공장으로 수출하여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우 수출 감소가 예상되며, 현지공장을 보유한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우 생산차질로 인한 매출 피해 예상
- 조선소가 러시아로부터 기수주한 선박에 대해 미국, EU산 부품의 수출제한이 적용될 경우 건조에 차질이 발생해 조선기자재 납품 차질 발생 우려

□ 또한 공급망 불안정에 따라 유가 및 운임,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고 있어 기업의 원가 부담 가중

-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이번 사태로 유가와 원자재가격의 인상이 지속된다면 기업의 원가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
- 또한 해당국가에 대한 운송위험 부담으로 운송수단을 구하기 어렵거나 운임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큼

□ 그럼에도 업체 자체 대응책 마련이 힘든 상황

-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 법인 부재로 신속한 정보 파악이 어렵고, 자금, 인력 등의 문제로 수출입 대체선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영세업체의 경우 무역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자체적 대응이 쉽지 않은 편
- 그럼에도 對러시아 수출비중이 큰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해 오더 발생 시 납품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다만 일부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대러시아 거래 보류, 수출 대체선 모색, 원자재 재고 사전 확보 등을 통해 대응 중

□ 현 상태에서는 지역 수출입업계 피해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에 수출입 대체선 개척 및 무역보험 지원, 원자재가 안정화 노력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4 지역 수출입업체 모니터링 사례

□ A사

- 선박용품, 부품, 기자재, 소모품, 수산물가공공장에 들어가는 자재 등을 납품하는 업체로 매출의 100%가 수출이며 수출 100%를 러시아에 하고 있음
- 현재로선 러시아의 송금 차단이 가장 우려되는 사항임. 연매출 50억원 정도로 월 5억원 정도씩 러시아 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태 악화 시 대금수금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를 3국통화 결제로 대체하여 돈을 받기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일개 기업이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

□ B사

- 금속관을 제조하는 회사이며 현재 분쟁사태 관련 사전 대책 마련을 위해 러시아 에이전트와 화상회의를 요청해놓은 상황임
- 현재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수출 차질 발생과, 환율 리스크, 송금 차단 등이 가장 큰 문제임. 현재 받아야 될 대금이 약 12만 불 정도임
- 회사차원에서의 대책은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고 러시아 에이전트와 회의 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예상함

□ C사

- 쌍용차 중심의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이며 1달 전부터 분쟁사태로 인해 우크라이나 쪽 오더가 중단된 상태로 매출 감소 발생
- 러시아 측은 별다른 동향은 없으며 현재 받을 대금이 있지는 않아 피해가 없어 회사 차원에서의 별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음

□ D사

-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업체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둘 다 수출 거래 중임
- 현재 러시아로 수출한 물품의 해상운송이 출발되어 도착시점이 3월 말~4월 초로 예상. 만약 도착 시에 러시아 측의 대금 지급 불가 또는 통관 거절시 대금 회수나 정박료, 연체료 등에 대한 문제 발생.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입한 보험은 없는 상황이며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전쟁에 관한 리스크가 보장되는지 여부가 애매한 상황
- 따로 현지에 사무소가 없어서 정확한 파악이 힘들며 전쟁이라는 불투명한 상황에 뾰족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 E사

-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업체로 러시아쪽에 100% 수출을 하고 있음
- 현지 지사는 없으며 직원 1명이 현지에 출장 중이며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중임
- 출장 직원의 안전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며, 두 번째는 회사 매출 감소가 예상되고, 금융 제재로 대금 회수를 못할 경우 회사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
- 현재는 상황 모니터링 중이며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없으나, 러시아 100% 의존이라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수출국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 F사

- 러시아, 우크라이나 두 군데 모두 냉동수산물을 수출하고 있지만 두국가의 매출액 비중은 크진 않음
- 어제 우크라이나에 방어를 수출하는 배가 출항해 도착 시점은

대략적 1달 이후로 예상 됨. 우려되는 부분은 계약금은 지불 받았으나, 앞으로의 잔금 지급 여부가 우려됨

- 매출액 비중이 크지 않아 회사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없음

□ G사

- 종합물품 도매업을 하는 업체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거래 중이며 수출보다는 수입 위주로 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는 연 2~3건 정도 수준으로 미미한편이며, 러시아쪽 수입은 냉동어류와 철강류 등이 있는데 냉동어류의 비중이 큰 편이며 이번 사태로 수입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대체수입선으로 일본쪽 수입하는 방향도 있긴 한데, 러시아 쪽에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또한 전쟁이 발생할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따로 회사 차원에서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임

□ H사

- 러시아에 진출한 LG에 철강판을 납품 중이며 현재까지는 발주 중단, 선적 홀딩 등의 우려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물품 대금 지급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
- 상황이 악화되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가 진행되거나 금융 결제쪽 제재가 진행되면 결제대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 상황 예의주시 중
- 다만 실제 대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면 국내(창원) LG 쪽과도 거래를 하고 있어 이쪽을 통해 결제 금액을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중

□ I사

- 배관자재류를 제조하는 업체로 중동 거래선을 통한 러시아 간접 수출이 일부 있으나 비중이 미미해 큰 영향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대금결제에도 큰 문제가 없음
- 다만 상황이 장기화돼 거시적 불안정성이 커지면 간접적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여기에 대한 기업 차원의 대응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봄

□ J사

- 조선기자재 제조업체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로 직수출은 없고 조선소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어 대금 결제 문제도 없는 상황
- 다만 니켈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것에 대한 비용 부담과 수급 차질에 따른 수급기간이 늘어지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
- 조선소에서 러시아 발주 선박에 들어가는 미국산이나 유럽산 부품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함. 향후 미국이나 유럽의 제재가 선박 부품에 대한 제제로 확산되면 건조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

□ K사

- 액체 여과기 제조업체로 러시아 수출이 있지만 볼륨이 작아 큰 애로는 없는 상황
- 원유가,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과 수급 차질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
- 대부분 건설사나 조선사를 통해 납품이 되고 있어 직수출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대금결제도 문제없는 상황
- 향후 영향이 있을 만한 상황이 발생하면 고객사 쪽에서 홀딩 등의 요구가 있을 수 있음

□ L사

- 당사는 우크라이나에 케이블 전선 원자재를 수출 하고 있음. 비중은 전체 매출의 10% 정도임
-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발주처 공장은 가동 중으로 파악하고 있음. 최근 수출 분에 대한 대금도 받았고 몇 일전에도 신규오더를 받아서 3월 선적을 계획하고 있음
- 현재까지 피해사항은 없으나 향후 사태악화로 인한 오더의 취소 등이 걱정됨. 금융제재로 인한 대금결제 부분은 수출보험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음

□ M사

- 컨베이어 및 컨베이어 부품 제조업이며 러시아 수출이 99%를 차지하는데 현재까지는 피해 상황이 없음
- 특히 100% 물품대금 입금 확인 후 제품 제작을 하여 수출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물품 대금 회수 문제는 없음
- 다만, 향후 금융제재로 인한 대금 송금이 막힐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회사 차원의 논의는 현재까지 없음

□ N사

- 도장기기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로 러시아의 비중이 높음. 특히 러시아 거래처의 사업확장으로 당사의 수출물량도 전년 대비 200%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현 상태가 상당히 아쉬움
- 현재까지는 수출 대금을 다 회수하여(선입금후 제작) 피해는 없으나 주 거래처에서 3~5개월 주기로 오더를 발생해 향후 오더에 대한 대금 회수에 걱정이 많음
- 정부와 부산시 등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책, 해결책을 망하고 있으며 부산상의에 이와 관련 정보가 있을시 꼭 알려주

길 희망

□ O사

- 러시아에 현지공장이 있으며, 녹다운 수출(부품수출 후 현지공장 조립)을 통해 생산된 자동차부품을 현대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에 납품. 지난해 러시아 수출은 약 200억원에 달하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
- 현재 러시아 현지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나 러시아에 대한 금수조치가 단행될 경우 당사 현지공장의 생산 차질 또는 가동 중단으로 인한 매출 손실이 우려됨

□ P사

- 지난해 러시아로 피팅제품을 수출했으며, 수출금액은 몇십만 유로 수준으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
- 올해 들어 러시아 수출에 대한 수출대금은 모두 지급받아 현재 까지는 문제없으나 러시아에 대한 서방국가의 경제제재가 지속되면 러시아 수출이 차질을 빚을 전망
- 러시아 수출이 불가능해질 경우 타 유럽 국가로 수출선 다변화를 모색해 볼 예정

□ Q사

-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유럽 또는 일본의 바이어로부터 수출 주문을 받아 공장설비가 있는 러시아(엔드유저)로 피팅제품을 수출하는 구조이므로 수출대금회수에는 현재까지 문제없음
- 러시아 수출은 금액으로 따지면 소액이나 꾸준히 수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방국가의 금수조치가 단행될 경우 러시아 수출 불가로 인한 매출 손실 발생 예상

□ R사

- 러시아로 고무벨트 제품을 연간 35억 원정도 수출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수출시 수출대금을 완납받고 수출하고 있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는 현재로선 없었음. 최근 러시아로부터 수출주문을 받았으나 수출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물량을 선적하지 않을 계획임
- 서방국가의 금수조치가 단행될 경우 러시아 수출길이 막혀 고스란히 매출 손실로 이어질 전망이며, 매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새로운 수출선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

□ S사

- 지난해 연말부터 러시아로 겨울 생선(방어, 삼치 등)을 수출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없었음
- 수출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러시아지역 수출판로를 확보했으나 서방국가의 경제제재 강화로 러시아 수출이 막힐 경우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 걱정됨

□ T사

- 화장품 도매업을 하는 업체로 러시아·우크라이나에 수출하는 비중 95% 이상 차지
- 사실상 당장 체감되는 피해는 없으나 미국을 비롯한 유럽국가의 금융제재로 인한 향후 거래대금 회수 우려와 더불어 사태 장기화되면 기업활동 자체가 불가해지지만 현재로서는 지켜보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상황
- 현재 거래대금을 페이팔(Paypal; 미국기업의 온라인 전자 결제 시스템)을 통해 정산중인데, 금융제재 가해지면 페이팔도 막힐

것으로 예상되어 결제라인 우회 등 다변화 검토 중

- 지난주부터 EMS접수는 막힌 반면 포워딩은 아직까지 원활히 진행되고 있긴 하나 거래대금 회수 차질 발생 시 전 직원 장기 무급휴가 처리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

□ U사

- 무역회사로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지역 거래비중 50%가량되며 거래한 지는 6~7년 정도 됨
- 당사가 거래하는 지역은 러시아 인접한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 정기선사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
- 리비아 사태 때도 해당지역 교역한 경험이 있음, 만약 국제적인 차원의 제재 강화로 심각한 상황 우려되면 선사차원에서 선적을 거절하나 현재 아무런 제재 없이 화물 거래 중
- 다만 현재 러-우크라 사태가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확대되거나 장기화되는 등 우려에 따라 선적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관련하여 선사와 비용 협의 중임

□ V사

- 무역회사로서 러시아지역 거래비중 80~85%가량 되며 기계부품을 주로 수출하는데, 사실 회사 규모도 크지 않고 현재 크게 체감되는 부분도 없어 회사차원의 대응방안 검토하지 않는 중
- 다만, 장기화되면 거래대금 회수 등 차질은 예상되므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은 마련해줬으면 함

□ W사

- 선박기관부품을 수출하는 업체로 러시아와 거래 중이며, 스위프트 규제 발생 시 향후 대금결제 지연되는 부분이 큰 문제로 보이며 현재 지켜봐야 되는 상황임

□ X사

-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러시아 수출 비중이 있는 편이며 현재 거래처는 결제를 문제없이 해주겠다는 입장임, 수출보험 관련해 전쟁 보상조항을 알고 있으나 전쟁 발생으로 인해 보험금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이 안 된 상태임

□ Y사

- 금속캔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러시아 비중은 큰 편임, 안 그래도 수출 운임도 오르고 스케줄잡기가 어려운 상황임. 회사차원의 대책으로 수출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아직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음

□ Z사

- 밸브류 제조업체로 러시아에 상당히 많이 수출 중. 앞서서 이란에도 수출중이었는데 제재로 인해 큰 피해를 봤었고, 이번 러시아의 경우도 반복될까봐 크게 염려되는 상황. 러시아 수출을 못하게 된다면 회사에 큰 타격이 갈 예정이며 산유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당사로서는 남은 거래처가 미국밖에 없는 상황
- 수출보험이 있는지 몰랐는데 챙겨볼 예정임

□ AA사

- 무역업체로 러시아 비중이 조금 됨. 지금으로서는 크게 염려하고 있지 않음. 다만 카자흐스탄에도 수출하는데 러시아 국경을 통해서 가는게 있어서 통관이 염려가 되는 상황.
- 러시아쪽에 현재 결제 대금 요청을 해둔 상황이고 지급이 된다면 계속해서 거래할 것이고 아닌 상황에서는 그때 고민해볼 예정
- 무역대행도 하다보니 현재로서는 수출보험 관련해서 깊게 고민해보지 않았음

□ **BB사**

- 에스티엑스 선박엔진부품 판매 대리점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로 수출납품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도 수출은 일부 하고는 있으나 비중은 미미한 편이라 피해는 없으며 향후 간접적으로 원자재가 및 유가 인상 등 인플레이션 우려 등 있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람

□ **CC사**

- 공작기계를 제작하는 기업으로 최근에 러시아와 첫 거래를 한 상황으로 아직까지는 피해상황은 없음
- 현재 약 4천만원정도 잔금을 회수해야하고 최근 러시아기업들의 발주문의가 있는 편인데 향후 사태 악화로 러시아의 금융제재 발생 시 잔금회수의 문제가 발생하고 러시아 기업과의 원활한 수출계약도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중소기업이라 수출보험가입이 부담스러운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DD사**

- 당사는 선박부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음. 러시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며 현재 미수금도 10만불 정도 있음
- 전쟁 발발에 따른 거래감소와 금융제재에 따른 대금회수가 걱정되는 부분이나 특별한 대책 없음
- 그러나 작은 기업의 특성상 10년 넘게 거래한 러시아 거래처를 전쟁을 계기로 끊는다면 향후 사태가 진정되었을 시 일종의 쾌嚓죄로 새롭게 발주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EE사**

- 자동차 외장 보호필름 제조업체로 러시아, 우크라이나랑 수출 이력은 있으나 현재는 러시아와만 거래하고 있음
- 수출처는 동남아, 중동, 태국, 유럽 쪽이며 전체 매출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이며 피해는 없는 상황임
- 상황은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기업차원의 특별한 대응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 FF사

- 러시아에 어선선용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러시아 거래가 전체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
- 현재 피해상황은 없으며 금융재자에 대한 수출대금 회수 등이 걱정은 되나 기업차원에서 특별한 방안이 없어 추이를 지켜보고 있음

□ GG사

- 최근 몇 년간 우크라이나랑 거래가 없었는데 올해 냉동방어 수출 거래가 조금 있음
- 최근 거래물량은 22일자 배로 선적하여 보냈고 3월 말 도착예정임
- 현재 피해는 없으며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수출보험을 들었고 전쟁 시 보험의 효력 유무도 계속해서 확인하여 공사를 통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라 업체차원의 특별한 대응은 없음

□ HH사

- 조선기자재 제조업체로 러시아 수출을 하고 있지만 비중이 매우 적은 편이라 수출에 있어 영향 없음, 추후 우려사항은 당장은 피해가 없지만 환율 변동 리스크, 원자재 가격상승이 우려됨

□ II사

- 철강선 제조업체로 러시아에 수출하는 비중이 매우 적음, 현재로서 사태 불안성으로 인해 수출 물품을 선적하고 있지 않음. 곧 러시아에 도착하는 수출품들이 있지만 만약 사태가 나빠진다 한들 수출보험을 들어놨고 비중이 적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임

□ JJ사

- 치과기자재 제조업체로 러시아 비중이 크지 않아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혹시나 피해사항이 우려되는 것은 수출입 차질이 걱정됨

□ KK사

- 수출회사로서 러시아 교역 비중은 10~15% 가량되며 주 거래처는 말레이시아, 두바이, 미국임
- 비중도 낮고 올해 들어서는 러시아 거래비중이 거의 없어 현재 사태 관련 타격 없는 상황
- 사태 장기화되면 타 국가 교역비중 늘리는 방향으로 대응할 예정

□ LL사

- 피팅류를 제작하는 업체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출 없으며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
- 니켈 가격이 올라가면 원가 부담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쟁으로 선사들이 일부 지역에 운항을 하지 않을 경우는 수출 차질이 우려됨

□ MM사

- 철강선을 제조하는 업체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는 수출하고 있지는 않아 직접적인 애로사항은 없으며, 분쟁 심화 시 원자재가 인상이 예상되는데 이를 대비해서 미리 원자재 재고를 다량 확보한 상황임

□ NN사

- 어망 제조업체로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랑 직간접적으로 수출입을 하지 않고 있으나, 추후에 러시아 및 주변 국가들과 수출입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커서 후에 피해가 예상됨.
- 원자재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고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한 우려 또한 있음

□ OO사

-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직접적으로 거래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음, 원자재 가격상승이 되면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임